

1970년대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핑크메이크업 중심으로-

강 명 주*

명지대학교 토탈코디네이션학과

패션과 마찬가지로 메이크업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대적·문화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문화에 대한 외적 표현의 수단이다. 따라서 메이크업을 통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패션경향에 따라 나타나는 메이크업의 특징을 파악하여 메이크업 분야에 대한 이론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메이크업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문헌 연구,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문헌 연구는 서양복식사, 서양복식문화사, 동·서양 미용문화사, 서양복식사, The Make up, 메이크업디자인, Design, Face in Make up 등을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자료는 <http://blog.naver.com>, <http://gongmo.edu-l.org> 등을 이용하였다.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과 함께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적 불안요소가 만연한 시기였다. 60년대 이전의 영 패션을 추구하던 젊음 지향적과 낙천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세계평화, 생태계 보호 등의 자연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베이비 붐 세대의 많은 여성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참여 의식이 고취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패션에서는 캐주얼, 유니섹스(Unisex), 핑크(punk) 등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특히 핑크스타일은 1970년대의 대표적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핑크스타일의 등장은 70년대 후반 영국에서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이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을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반 모드 현상으로, 영국의 특수한 경제 불황 하에 일부는 팝 스타를 모방하는 젊은이들에 의해 또한 일부는 히피의 움직임과 함께 형성되어졌다.

핑크족들은 공격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것이 목적으로,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과 공포감을 자아내는 메이크업, 폭력적인 이미지의 액세서리, 더럽고 혐오스러운 복장 등의 표현으로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띠므로써 그들의 근본인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을 극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핑크는 하이패션에 새로운 감각으로 신선함을 던져주었고 현대패션에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 Corresponding Author: mjmakeup@hanmail.net

1970년대 메이크업의 특성으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핑크 메이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메이크업에서는 자연주의 영향을 받아 선과 색조의 경향이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눈썹의 형태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다. 피부표현은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하기 보다는 피부자체를 관리 하면서 피부를 강조 할 수 있는 라이트 파운데이션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핑크메이크업에서는 전위적인 표현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다양한 문양의 문신과 함께 피부는 창백함을 강조하듯 하얗게 표현하고, 눈썹과 눈은 검정 색이나 다른 강한 색으로 굵거나 강한 선으로 표현하며, 입술의 색도 뱀파이어 분장처럼 검정색을 섞어 바르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1970년대 메이크업 특성을 살펴본 결과 메이크업은 사회적 이념과 문화와 함께 시대상이 함의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외형적인 표출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메이크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메이크업의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구조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메이크업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함으로써, 메이크업 분야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한다.